

## 후원안내



###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7월 후원미사는 16일, 8월 후원미사는 20일, 9월 후원미사는 17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02.924.9970~1

### 2018년 5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 수입내역

수입 총액	16,320,000	전월이월금	25,000
지 로	2,015,579	우리은행	3,831,319
국민은행	4,408,000	하나은행	1,211,000
조흥은행	95,000	신한은행	1,795,000
외환은행	292,500	제일은행	165,000
농 협	1,265,000	기업은행	495,000
우 체 국	45,000	교구보조	676,602

#### 지출내역

항 목	지 출	세부내역	
단 체 찬 조 비	베들레헴어린이집	6,5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1,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벗들의 집	9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행사비 등
	마교네공부방	1,2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사랑의집	1,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상호문화센터	7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12,825,000	
지원금	노동사목위원회	3,450,000	장기수선충당금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	운영비 등
지출 총액	16,275,000	잔액(이월금)	45,000

###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www.seoulmigrant.net

2018. 6 / 제24호

펴낸날 2018. 6. 18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남창현 편집 김평안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 신부님글

### 친미예수님!

존경하옵 후원자 여러분, 밀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다들 들어보셨지요? 여러분은 살면서 혹시 밀빠진 독에 물붓는 느낌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도 있지요.

우리들이 복음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항상 당당하시고 거침이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날은 문득 복음 속의 예수님의 얼굴이 평소와는 다르게 그려졌습니다. 그 얼굴은 먼지 묻고 땀 흘리시는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혹시나 예수님도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치유를 하시면서 가끔씩 자문하시지는 않으셨을까. 이게 무슨 소용일까. 치유했던 사람들이 또 다른 병에 걸리고, 용서 받았던 사람들이 또 죄에 빠지는, 당신의 제자라 자칭하던 자들이 당신을 배신하게 되는, 그래서 이 세상의 아픔과 죄악들은 그대로 일테데라는 생각에 힘 빠지시진 않으셨을까.

사제로 살면서 때때로 깊은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이주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사람들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깊은 혐오와 냉대를 대할 때, 열심히 자립을 도왔지만 결국 또 넘어져서 계속해서 의지하며 도움을 끝없이 요청하는 이주민들을 볼 때, 교회의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주민들에 대해 무관심한 신자들이나 사제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게 대체 무슨 소용인가 자문합니다. 그럴 때 또 제 마음에 밀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 사제들은 매일 미사를 거행하고, 신자들을 가르치고, 신자들을 위로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과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사람의 귀천이 그가 하는 일에 있지 않고, 그의 존재 자체 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실망에 빠집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약하고 비겁한 존재임에 고개를 떨굽니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은 강원도 쪽에 모임을 갔다가 오는 길에 청춘불패라는 티비프로에 나왔던 폐가를 들른 적이 있습니다. 폐가를 아이 돌들이 개조해서 그곳에서 자급자족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폐가는 말 그대로 폐가였는데 연예인들의 사진이 있고, 그 지역의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공간이 유명인들이 머물러 손질했다는 이유로 관광 명소가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여정은 어쩌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변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나를 바꾸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은 아닐까 묵상해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바라봐야 하는 분은 그저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마굿간이 예수님으로 인해 성스러운 땅이 되고, 저주받은 십자가들이 구원의 상징이 되고, 배신과 실패의 표식인 예수님의 오상이 그분 사랑의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 공동체 소식 위원회 소식\*

#### 이민의 날 맞이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제10회 이주민 축복 나눔 행사

매년 이민의 날을 기념하여 이주민 축복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10회를 맞이하여 5월 27일(일) 오전 11시에 동성고등학교 강당과 운동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제1부 필리핀, 베트남, 남미 공동체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제2부 국가별 음식 나눔, 제3부 파견미사(영수정 추기경님 주례)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의 참석자들은 본국에서 먹던 음식으로 고향의 정을 느낄 수 있었고 미사로 함께 기도하며 타지 생활에서의 고단함을 위로받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공연과 음식 나눔 준비에 참가한 이주민들은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서 바쁘게 일하면서도 쉬는 날 개인시간을 할애하고 준비하여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 필리핀공동체 소식\*

#### 산타크루잔 축제

산타크루잔 행사는 종교적 의미를 갖는 필리핀 전통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5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께 꽃 봉헌(특히 어린이들이 봉헌)을 하고, 마지막 날인 5월 31일에 성모님을 모시고 행렬하는 행사입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쥐고 있는 헬레나 여왕이나 천사, 성모님을 상징하는 전통 의상을 입고 참석합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수백 년 전, 신성한 십자가 앞에서 전쟁을 해도 될 지 물었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고 전쟁에 승리하여 정복한, 그리스도인 첫 번째 로마 황제입니다. 그의 어머니인 헬레나 여왕은 서기 326년에 성지 순례를 가서, 예수님께서 매달리셨던 나무로 된 성스러운 'INRI'의 십자가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십자가를 'Santa Cruzan'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종교적 행사인 산타크루잔은 헬레나 여왕이 예루살렘에서 성스러운 십자가를 발견했던 당시를 재연 또는 기념하며 성모님을 모시고 성전에서 성전으로 동정 마리아와 관련된 노래를 부르고 묵주기도를 바치며 이동하는 필리핀 전통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 행렬의 끝은 성모님께 꽃을 봉헌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동정 마리아께 드리는 이 전통적인 행사는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공경이며,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깊은 믿음과 한 분이신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행사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주사목위원회 산하 필리핀공동체는 5월 20일 주일에 필리핀공동체 센터(성북동)에서부터 혜화동 성당까지 성모님을 모시고 행렬을 진행하였습니다.

### 베들레헴어린이집 소식\*



▲ 성모의 날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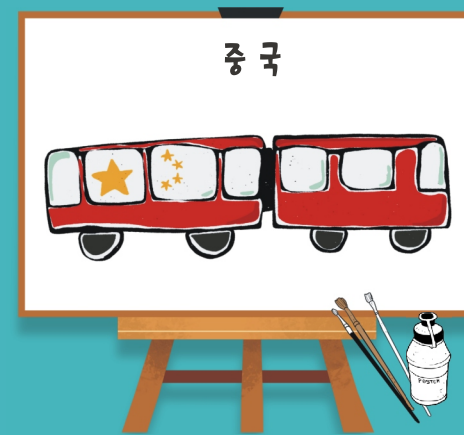


▲ 창경궁 견학



▲ 창경궁 견학

### 문화알림 교통수단 2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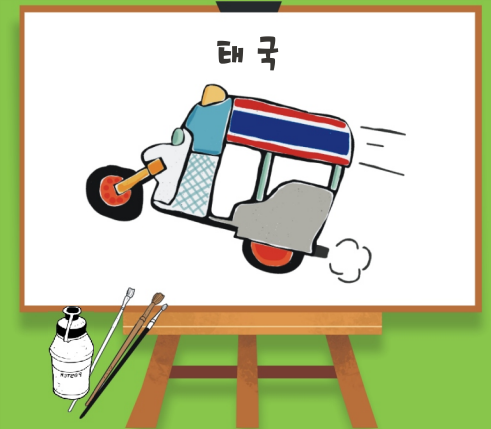


중국은 버스 종류와 모양이 다양하며 버스 2대를 이어 만든것과 흡사한 버스가 있는데 중간에 아코디언 모양처럼 구부러질 수 있는 게 있어서 일명 '굴절버스'라고 합니다. 사이즈가 크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길이가 길다 보니 도로 주행 중에 다른 주행자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단점입니다.

중국도 택시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는데 택시회사에 따라 색깔이 다르기도 하지만 북경(北京)은 대부분 노란색에 빨간색 혹은 검은 색이 같이 있는 택시이며, 천진(天津) 같은 경우는 하늘색을 띠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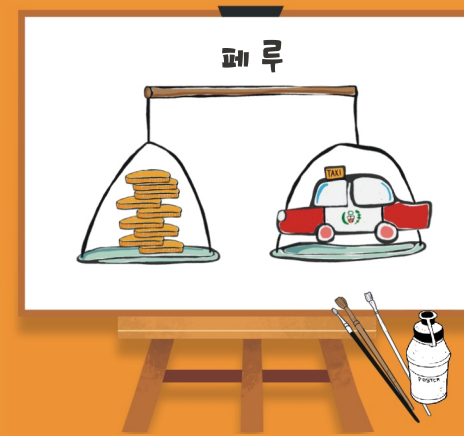
전동차는 중국인이 자전거만큼 자유롭게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배터리가 주 원동력이고, 이 배터리를 충전하여서 사용합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따로 면허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젊은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유용하게 탈 수 있는 이동 수단입니다.

택시만큼이나 많은 것이 '특특'인데 오토바이를 개량해서 만든 것으로 시동 걸 때 특특 소리가 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가까운 거리를 가거나 차가 막힐 때 이용하면 좋지만 기준 요금이 없기에 흥정으로 요금을 책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매년이나 더위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번호판이 노란색은 영업용으로 보통 기사들이 조끼를 입어 운전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쁜 시간대나 차로 들어가기 어려운 곳으로 갈 때 유용하지만 위험하기에 영업용 오토바이 이용 시 반드시 헬멧은 착용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스카이 트레인이라 불리며 지상에서 다니는 BTS와 지하로 다니는 일반 지하철인 MRT 두 노선의 역을 모두 다 합쳐도 40여개 정도의 작은 규모지만 교통체증이 심한 방콕에서 유용한 대중교통입니다.



페루 택시에는 한국과 달리 미터기가 달려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택시를 타기 전에 택시기사와 흥정을 하고 어디까지 얼마에 갈 것인지 미리 정합니다. 또한 한국처럼 한 대의 택시에 탈 수 있는 인원 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함께 타기도 합니다.

버스에는 운전기사와 차장이 따로 있는데, 차장은 버스요금을 받고 손님을 끌어 모으는 역할도 같이 해서 길거리를 지나다니다보면 목적지를 외쳐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일정한 버스회사가 운영하는 노선이 있지 않기에 처음에는 버스를 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메트로폴리타노는 리마에서 지하철과 같은 역할을 하는 버스로 전용 정류장과 전용 차선이 있어서 교통 체증이 심한 리마에서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콜렉티보는 버스보다 약간 작은 봉고차 같이 생긴 합승 버스인데, 일정한 구간을 정하고 노선버스처럼 운행하는 사설 교통수단이며 정차하는 도로 이름과 목적지를 버스 앞 유리창에 붙여 놓습니다.